

2019년 9월 16일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혁신행정담당관 지성훈 과장(044-201-1341), 방도혁 사무관(1342) / 제공일: 9월 16일(총 3매)

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

농식품부 3개 산하기관 홈페이지 '동해' 등 표기오류 즉시 수정 및 삭제 조치, 해당기관은 문책 등 실시 계획 [연합뉴스(9.16.) 보도에 대한 설명]

- 농식품부·산림청 산하 14개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를 점검한 결과, 한국임업진흥원 등 3개 기관을 제외한 11개 기관은 네이버지도, 카카오맵 등 국내 지리정보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어 동해나 독도를 잘 못 안내한 기관은 없었습니다.
- 이번에 문제가 된 3개 기관 홈페이지는 오전 중으로 즉시 수정 및 삭제 조치하였고, 이번 보도를 자성의 계기로 삼아 산하 모든 공공기관에 대하여 영문 홈페이지 등을 일제 점검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.
- 홈페이지 안내 지도 관리를 소홀히 한 기관장 및 관련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, 해당 공공기관은 『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』에 반영하여 불이익을 줄 계획입니다.
- 9월16일자 연합뉴스<이양수 “농림부 산하 기관 3곳, 동해를 ‘일본해’로 표기”>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.



언론 보도내용

-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은 16일 농림축산식품부 산하기관 3곳의 안내 지도에 동해가 ‘일본해’로 표기돼 있다고 지적했다.

- 이 의원에 따르면 한국임업진흥원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안내지도에서 동해는 '일본해'로, 독도는 '리앙크루 암초'로 표기돼 있고,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국제식물검역원의 영문 홈페이지의 안내 지도에도 동해가 'Sea of Japan', '독도'가 'Liancourt Rocks'로 표기됐다.



농림축산식품부 설명

- 농림축산식품부(이하 “농식품부”)와 산림청은 위 보도와 관련하여 부·청 산하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안내 지도 서비스를 일제 점검한 결과, 언론 보도에 언급된 3개 기관을 제외한 다른 공공기관에서는 동해나 독도를 잘못 안내하고 있는 기관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.
- 이번에 물의를 야기한 3개 기관 홈페이지의 안내 지도에 '동해', '독도' 등 표기 오류는 오전 중으로 즉시 수정 및 삭제 조치하였습니다.
- 일제 조사결과, 다른 공공기관은 영문 홈페이지가 없거나, 국내 지리 정보 서비스 업체인 카카오맵이나 네이버지도 등을 활용하여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,
 - 농식품부 산하 농업정책보험금융원, 국제식물검역인증원 2개 기관은 영문 홈페이지의 기관 안내 지도를 글로벌 지리정보 서비스 업체인 구글맵과 연동함에 있어 이용 지역 및 언어 설정을 별도로 하지 않아 영문으로 동해를 'Sea of Japan(East Sea)'으로, 독도를 'Liancourt Rocks'로 잘못 안내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.

- 또한, 산림청 산하 한국임업진흥원은 이용 지역은 설정하지 않고 언어만 한글로 설정한 관계로 월드버전 상 영문인 'Sea of Japan(East Sea)' 중 'Sea of Japan'만 한글로 자동 번역되어 '일본해'로 표시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.(이용 지역을 대한민국으로 설정하면 '동해'로 표시됨)

-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농림식품 관련 공공기관의 지도·감독을 담당하고 있는 농식품부와 산림청은 이번 보도를 자성의 계기로 삼아 산하 모든 기관에 대하여 영문 홈페이지 등을 일제 점검하도록 지시하였고,

- 동해·독도 등과 관련하여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기관장 및 관련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, 해당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「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」에 반영하는 등 불이익을 부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.